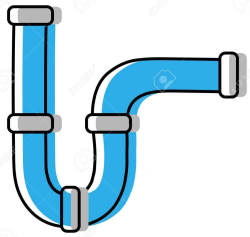


<로마서 4:1-15>



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
믿음입니다.

수도관을 통하여 물이 콸콸 흐르듯이
믿음을 통해
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.

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

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
되었느니라 (3)

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늙어서
도저히 아이가 생길 수 없었지만
‘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’라는 말씀을
믿었습니다.

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것을 보시고
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.

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.

내가 한 것은
하나님이 사람들과 상황을 통하여
내게 전해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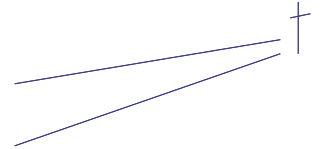
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

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
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
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
이 될찌라 (창 12:1-2)

‘아버지와 친척이 있는 고향을 떠나
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가라’는 하나님 말씀에
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어요.

가본 적 없는 곳이지만
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.

‘복의 근원’이 될 것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
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
모든 민족이 복음의 은혜를 입었어요.



아브라함뿐 아니라
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실 때는
목적이 있습니다.

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
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
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
나를 부르셨어요.